



전북자치도, 공무원 마음건강 전복센터 개소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전복센터'를 24일 도청 1층에 공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을 돌입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47조 및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해 인사혁신처가 민간 심리상담 전문가(휴노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서울(2008년)을 시작으로 전국에 순차 설치돼 온 이 센터는 이번 전복센터 개소로 전국 11번째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도청 1층 전 법률상담실을 리모델링해 올해 2월 공사를 완료한 뒤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이용 대상은 도내 공무원과 그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까지 포괄한다. 상담사 2명이 상주하며 개인·집단 심리상담, 진단·심리검사를 상시 제공한다. 대면은 물론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담사가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및 회복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예방부터 회복, 현장 복귀까지 전 주기를 아우른다.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지원, 고위험 업무 수행자 PTSD 예방 긴급 위기 개입, 공공공무원 직무복귀 지원, 신입공무원 직무 적응 지원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문가 특강, 집단상담, DIY 체험 등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체험형 일반 단체 프로그램도 월 1~2회 진행된다.

이번 개소는 단순한 상담 공간 마련을 넘어 전북 공직사회의 심리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매주 월·수·금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말 상담도 운영해 직무 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공무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신청은 전화(063-714-3325·3335) 또는 이메일(jorbuk@huma.ro)로 할 수 있다. /오만호 기자



설 명절 사매면 복합문화공간 방문 잇따라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설 명절 동안 사매면 복합문화공간(이하 매화안터)에 귀향객과 방문객들이 잇따라 찾아 지역 활력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사매면 매화안터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사매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민 공동이용 및 교류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다.

특히 매화안터 카페는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농촌 중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사매면은 향후 주민 프로그램, 문화행사, 공동체 활동 등을 확대 운영해 농촌 중심지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설 명절 기간 사매면을 찾은 귀향객과 외부 방문객들이 가족 단위로 매화안터 카페를 방문해 휴식을 취하고, 답소를 나누며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활발히 이용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금동, 경로당 어르신 대상 갈비탕 나눔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조산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갈비탕 나눔 행사를 추진하며, 결식 우려 해소는 물론 겨울철 면역력 강화와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음식 지원이 아니라 '건강한 한 끼가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취지 아래, 고기 섭취가 쉽지 않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를 위해 단백질과 영양을 고루 갖춘 갈비탕을 준비해 직접 전달하며 인부를 살렸다. 갈비탕이 대표 한상음식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나눔 활동을 이어가는 가계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봉래 금동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체험형 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투자, 돈이 아닌 삶을 설계하는 일”

두미선 한국투자증권 전주 PB센터장

“투자는 돈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전주 서신동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전주 PB센터는 최근의 ‘투자 열기’를 실감하게 했다.

하루 변호료 대기인원이 10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고 상담 창구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식 계좌를 처음 만들려는 중장년층부터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려는 고객까지, 센터는 마치 작은 금융 시장을 연상케 했다.

이 분주한 현장의 중심에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고객을 응대하는 두미선 센터장이 있었다. 차분한 목소리와 단정한 태도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오랜 금융 현장의 내공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힘이 동시에 느껴졌다.

두 센터장은 완주군 삼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교를 모두 전주에서 마친 ‘전주 토박이’다. 전북대학교 화학과 재학 시절 금융권 취업을 꿈꾸며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 당시 주변에서는 “한 전공도 합는데 욕심이 많다”는 말이 따랐지만, 그녀는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었다.

2002년 한국투자신탁으로 입사한 그녀는 2005년 동원증권과의 합병을 거쳐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 커리어를 이어왔다.

자산 관리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고객의 인생과 재무를 함께 고민하는 PB 매니저로 성장했다.

입사 20년 만에 익산 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았고, 4년 뒤 다시 고향 전주로 돌아와 전주 PB센터를 이끌고 있다. 20여 명의 직원과 지역 고객 자산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를 묻자 그녀는 “정부 정책과 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크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 공모주 열풍 때처럼 지금은 주식 계좌 개설 상담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며 ‘자금의 흐름’을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특히 코스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개별 종목 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해 ETF 등 분산 투자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을 설명했다.

그녀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보다 ‘태도’라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ISA와 IRP 계좌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했다.

ISA는 세계 해택과 금융소득 관리에 유리한 계좌이고, IRP는 노후 준비와 소득공제에 도움을 주는 퇴직연금 계좌라는 것이다.

두 센터장은 한국 사회의 자산 구조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에는 모바일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해 투자 방법을 배우고 상담을 받는 모습도 많이 늘었다고 한다. 오후 4시 업무 마감 이후에도 서류 정리 업무가 이어져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날이 많지만, 그녀는 이를 “금융 인식 변화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두 센터장은 “투자는 돈을 늘리는 일이지 삶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객의 인생 계획 속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PB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남원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시청 맞은편(시청로 41)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정책행보에 나선다.

양충모 예비후보는 지난달 출마 선언을 통해 남원이 직면한 상황을 인구 재정 행정의 3중의 위기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으로 인구도시, 경제도시, 참여도시의 구상을 밝히면서 경제시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 남원의 위기를 말하는 시간은 충분했다면 이제 방향을 정하고 실행해야 할 시간임을 강조하며, 선거사무소를 지지자 중심 공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의견을 나누는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거사무소에서는 △시민 정책제안 접수 창구 운영 △분야별 소규모 정책 간담회 △생생경제 및 지역 현안 청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건설기계협, 장수교육 장학금 장학금 기탁

장수군건설기계협회(회장 리영호)는 장수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장수교육지원청 장학금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곤 교육장이 2년째 추진 중인 ‘한 번 장학생은 영원한 장학생’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 번 장학생은 영원한 장학생’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지역사회 단체와 개인들의 기탁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

NH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는 24일 2026년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신뢰회복과 임직원 윤리의식 쇄신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금융기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직원들은 △한글골드태의 자세 △법령 및 규정 준수 △부패방지 △우리의 존립 목표 인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학생선수들, 동계체전 컬링 종목 석권

12세 이하부 남녀 동반 결승 진출

18세 이하부도 메달 획득 쾌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열린 컬링 종목에서 전북학생 선수단이 대거 메달을 확보, 5년 연속 종합 상위권 달성을 향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 컬링 학생 대표팀의 전력은 눈부셨다. 12세 이하부(초등부) 남녀 팀은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걸며 동반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 마지막 날 12세 이하부 여자 대표팀은 경북 대표팀을 8대 7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경기 대표팀에 10대 6으로 아쉽게 저 은메달을 획득했다.

12세 이하부 컬링 남녀 대표팀(전주스포츠클럽)은 전북교육청이 지정·운영하는 위탁형 스포츠클럽 소속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선진국형 클럽 시스템을 통해 기량을 닦아온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남녀 동반 결승 진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전북형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명했다.

고등부인 18세 이하부 남자팀(전북대사대부설고)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전북 학교운동부의 탄탄한 계열화 육성 성과를 뒷받쳤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전북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생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훈련 지원금을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특히 컬링을 전라 종목으로 지정해 해외 전지훈련과 장비 지원을 강화한 점이 이번 메달 획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25~2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전북 학생선수는 6개 종목에 134명이 출전한다. /오상근 기자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항 신항 바로알기 홍보 나서

관할권 확보 필요성 공감대 확산 위해 추진

“김제 미래성장기반 마련 위한 최소한의 요구”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가)가 지난 23일부터 김제시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관리구역으로 지정 결정된 새만금항 신항에 대한 바로알기 홍보를 시작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해상에 조성중인 새만금항 신항은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정에 의해 ‘새만금신항’에서 ‘새만금항 신항’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이라 국가관리구역으로 결정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새만금항 신항 바로알기 홍보는 김제시민들이 직접 새만금항 신항 현장에서 해양항만도시로 도약하는 김제시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한편,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새만금항 신항 관할결정 관련 쟁점사항과 관할권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새만금항 신항 사업개요와 함께 지난해 5월 결정된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정사항, 김제시 해양항만분야 현안사업, 새만금 내륙 매립지 관할결정 상황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은 “새만금 사업전 김제 앞바다는 바다와 동진강, 만경강이 만나는 풍성한 어장



이었고, 새만금 사업으로 김제는 바다를 잃어버렸다”면서 “새만금항 신항은 김제시 존립과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참여의지를 밝혔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은 “2026년 새만금항 신항의 개항과 관할결정을 앞두고 있는 엄중한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의견 결집이 필요한 때”라면서 “새만금항 신항이 최종적으로 김제 관할로 결정되는 순간까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